

# 광주 '이물질 수돗물' 불안감 여전

## 시청계시관에 '악취·이물질 계속 나온다' 민원 제기 상수도본부 "할 수 있는 일 다했다" 무책임 답변만

광주시가 최근 남구와 서구 일대에서 연이어 발생한 '이물질 수돗물'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수전에 설치한 필터가 며칠 사이에 황갈색 또는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등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끓고 있어서다.

5일 광주시 민원사이트 '광주행복 1번가'에 따르면 최근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

민원을 제기한 서구 화정동 주민 A씨는 "지난달 7일 수돗물에서 악취와 이물질이 검출된 지가 오늘로 21일째"라며 "상수도 이물질 유입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수조 청소를 몇 차례 실시했으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계속 보인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대 내부에서는 매일 일정시간 물을 흘려보내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 수돗물에서 나온 이물질 때문에 허드렛일 물로 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수기 물 또는 생수로 취사 및 식사를 하며 지금까지 하루에 1번씩 생수를 구입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알아서 해야 한다'는 어이가 없는 답변을 했다"면서 "먹는 샘물기준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육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이물질이 계속 나오면 '음용하는데 적합하지', '성분이 무엇인데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든지 공지는 주민들에게 전달도 안 해주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냈다.

그는 이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준공된 지 3년도 안된 아파트인데 노후된 배관 문제는 아닐 거라 본다"며 "수돗물 이물질에서 나프탈렌이 기준치 이하가 검출됐다고 해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수전마다 필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가 민원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눈살이 저절로 찌푸러질 정도로 심각해 보였다. 필터를 사용하자마자



수돗물 이물질로 인해 황갈색으로 변한 싱크대 수전 필터.

4일에서 7일 사이에 하얀색이었던 필터가 황갈색 또는 거무스름한 색을 띠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서는 지난달 20일 수돗물 적합 판정이 나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소측은 "지난달 7일 화정동 일대 이물질이 유입돼 아파트와 일반 가정집에 저수조 청소와 계량기 스트레이너를 청소하고, 수질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먹는 물 기준' 적합하다고 나왔다"며 "며칠이 지나도 흐린 물이 나오는 현상은 옥내 배관에 미량의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집에 오는 수질연구소 직원과 방문해 주방과 욕실, 아파트 단지 저수조 3군데 수돗물을 채수했다"며 "수질검사를 수질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춡다 추워' 광주와 전남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울겨겨 들어 가장 추운날씨를 보인 5일 오전 초등학교들이 두툼한 옷차림으로 등교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 반말·욕설하는 교장... '학교 갑질' 만연

## 전교조 광주지부 899명 설문, 교사 21.4% 경험

광주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이른바 '학교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광주지역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학교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899명)의 21.4%가 "기본을 상하게 하는 욕설과 반말 등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원 단체제를

주문하면서 지인의 가게에서 살 것을 강요하거나 팔을 다쳐 병가를 신청한 교사에게 위로 대신 '입으로 수업하지 팔로 하느냐'고 소리친 관리자,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다.

심지어 교장 개인의 보고서나 강의원 고를 대신 작성토록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일과 중에 악기 개인레슨을 요구한 관리자도 있었다. 유치원교사와 행정실장의 머리를 쥐어박고, 머리걸이를 문제삼아 자르도록 한 유치원 원장도

다'는 응답이 52.9%에 달했다. 특히 교육청에 갑질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64.3%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파일형태로 제공했을 뿐 실질적인 갑질근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교사들의 불만이 많다는 해석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재욱 정책실장은 "갑질은 사라져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학교내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은 학교문화 전반에 걸쳐 악습으로 남아 갑질의 차별이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줄까 걱정스럽다"면서 "시교육청의 근절 대책이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교육청의 정기적인 갑질 실태조사가 꼭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 꽃집 방화 막을 수 있었는데...

## 피해자 "불지르려한다" 사전 도움 요청 경찰이 외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고용해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미리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부사관인 A(22)씨는 지난달 24일 B씨를 시켜 전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꽃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 범행을 사주할 사람을 찾기 위해 SNS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공범 B씨보다 먼저 연락받은 한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지난 9월 이 남성에게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면 화재보험금을 타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 B씨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던 이 남성은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A씨가 방화 장소로 지목한 꽃집에 연락해 "방화를 의뢰하는 사

람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A씨의 전 여자친구는 불안한 마음에 관할 경찰서인 광주 서부경찰서를 3차례 찾아갔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불을 지르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우리가 해결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변명이 A씨의 전 여자친구를 둘러보았다.

결국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A씨는 SNS를 통해 B씨를 만나게 됐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이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경찰은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외국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루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고, /연합뉴스

# 광주서 오는 9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그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2019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 역사

적인 선언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채택했다.

기념식은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인권회의, 광주드라마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함이다. /오승지기자

# "노래는 노래방에서 불러!"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서행.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서구 농성동 한 국밥집 내에서 업주 B(65·

여)씨를 밀친 혐의.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A씨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을 가자지, 남의 업장에서 고성방가에 폭행까지 소란을 피우는 것은 무슨 심보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김동수기자

### 부동산경매 기초부터 전문가까지 완성

경매전문 "범무법인 로법" 범무실장  
- 조선대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과정' 전담교수  
-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강사  
- 호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전남 교육연수원 "재산관리와 생활법률" 강사

※부동산경매 더 이상 실전강의는 없다※  
- 부동산경매 사고방지를 위한 관련법률(판례)  
- 부동산 신증서기 대차법과 함정물건 특수분석

※수강후에도 동호회가입 지속적인 정보교류※

#### 경매 기본이론과 사례별 권리분석 및 실무강의

과정	부동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마스터과정	
시간	매주 화요일	주간) 15:30~17:30 야간) 19:00~21:00
수강료	8주 : 120,000원	
개강	2019. 12. 24. 화요일	
접수	2019. 11. 11. - 2019. 12. 20. 까지	
접수처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lifelong>	
대상	1.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나 자신이 없는 분 2. 부동산 관련 법률용어조차 전혀 모르는 분 3.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경매에 중사하고 계산 분 4. 경매전문가로서 더 깊은 권리분석을 원하신 분 5. 노후대책 및 업종변경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수강신청 062)230-7700~2 (인터넷신청)

## 고층빌딩(급) 처분!

금남로 대로변  
중심상업지역 대지657㎡  
연면적 7,470㎡ 승강기2대 주차86대  
보10억 월6,000만원가능

\*\*\*월세 임대용 최적,  
다용도빌딩으로도 적합  
==최고입지,최고상권,완벽한 건축물임  
급처분:상담 후 결정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나대지  
지방, 섬망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광주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광주지역 매매 임대 물건 구함>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금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